

질병 없는 사회 건설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약학인

#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  
<http://pharm.khu.ac.kr/>





## 임상 및 의약품 개발 전문 약학인 양성

약학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진단을 위한 의약품의 사용 및 개발을 위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약학과는 '창의적 학문 융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약학 인재 양성을 통한 질병 없는 사회 건설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Top 10 약학대학'으로의 도약을 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사회 건설과 문화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전문약학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창의적 융합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학자, 제약 및 약학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 세계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약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약학과는 2022년부터 약학교육을 통합 6년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약학과에서 총 6년간 교육을 받게 될 고교 졸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필수실무실습에서 장기간 심화실무실습까지

약학과는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지역약국 필수실무실습, 병원약국 필수실무실습, 임상약학 필수실무실습, 제약 및 의약품 행정 필수실무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실무실습 과정 이수 후에는 학생들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약국, 의료기관,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대학원 연구실에서 장기간 심화실무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에서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확정하거나 우수한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로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과의 학제가 통합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조제 중심의 약사 직능 교육 교과목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약사 및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도 다수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및 신·변종감염병 출현 빈도의 증가에 따라,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의 안전성,

---

##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시설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규제과학 분야의 약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졸업 전까지 영어 강좌로 개설된 다수의 전공필수 교과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학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뿐만 아니라, 5학년 이상 고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 하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해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전공분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교수진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그간 대학종합평가 약학 분야 1위, 해외 대학 평가 100위권 진입, 기초의과학센터(MRC) 유치 등의 쾌거를 이루어, 약학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신축한 약학대학관 내에는 학부 실험·실습 교육 전용 실험실, 실습약국, 약초원, 각 전공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 및 약학 전공 분야 연구 경험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둔 바 있습니다.

---

## 매해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

최근 3년간 경희대학교 약학과 졸업생들은 매해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문 중에는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인규 동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길광섭 동문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공영운 동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윤계순 동문 등이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은 물론 전국 우수 대학에서 화학·생물·의학·약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JW 중외제약 대표이사인 이성열

동문, 다림바이오텍 회장 정종섭 동문, 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본부장 윤경원 동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장/부원장 김정태  
 동문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동근 동문, 대한약사회 홍보  
 이사를 역임한 이광민 동문 등 산업계 및 임상 실무 현장에서도 리  
 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지역약국을 개국하거나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국내 우수한  
 기관에 다수 진출해 있으며, 일부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 약학 분야  
 를 선도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약학연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약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 져올까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여러 약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제약회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이전보다 빠르게 신약 후보 물질  
 을 선정 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의약품의 효능과 이  
 상반응을 임상 현장(병원, 약국 등)의 빅데이터인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활용  
 하여 평가하는 연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효능 및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평가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  
 이터 기술을 적용한 연구 결과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치료(Personalized Medicine)를 구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의 효능을 최대화하면서 이상반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약사의 조제 중심적 직무에서 벗어나 환  
 자 중심적 약물치료 제공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약사 직무와 약  
 학연구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